

WORLDVIEW

# SPECIAL



## 손봉호의 유머

회교 이맘 하나가 물에 빠져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허우적거렸다.

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가엾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“손을 내시오. 손을 내 놓으세요” 하고 소리쳤다.

그러나 그 이맘은 귀머리가 되었는지 들은 척도 않고 연신 고함만 질렀다.

그러자 랍비 한 사람이 물가에 모인 군중을 헤치고 나서서 자기 두 손을 내밀며 이맘에게 말하였다.

“내 손을 잡아!” 그 말을 듣자 이맘은 비로소 구원자의 손을 잡고 물에서 빠져나왔다.

구경꾼들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.

랍비 왈

“나는 이 녀석을 잘 알고 있소. 그는 구두쇠라 절대로 제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소.

‘손을 내시오’ 해서는 죽어도 내놓지 않습니다.

‘내 손을 잡으라’ 하니 그제야 덩석 잡고 나온 거지요.”